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5호 [주제 제25604호] 주제 106 (2017)년 4월 5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4월의 명절들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 정치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

만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영웅적로동계급이 안아온 사랑찬 승리

1.4 분기 전국적인 공업 생산 지난해

실적도 1.75%로 뛰어올랐다.

하여 수백억 원부문에서 만도 1.4분기만 매일 평균 계획보다 230만 kWh 이상의 전력이

특히 수산부문과 기계공장

사회주의 강국의 통일, 더운

여름에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뛰어

석탄생산과 철도화를 수주함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근 1.5배로 성장하는 혁학원성과

이룩하였다. 특히 1.4분기

간 중요현물지표들인 전력,

석탄생산과 철도화를 수주함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135%, 117%, 109%로 뛰어오르고 주체철과 강철생산량은

1.8%, 1.6배 이상, 압연강재

생산량은 2.1배로 높아졌다.

화학, 기계, 세제, 건설공업과 경

공업, 수산부문의 전후설적이며

증상현물을 비롯하여 5개년

전략수행의 전선에서 새롭운

만리마속도상조의 불길이 활화

산마냥 거제처럼 뛰어왔다.

《동무는 만리마루를 뛴다?》

라는 시대의 물음에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일등으로 펴았으며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룩하는 이 혁신적성과들은

온갖 원주민의 암울한 밤에

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자 지례자

의 위대한 통역으로 온 세상

보람듯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앞장서며 거제처럼 뛰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을

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력격진을 힘차

게 벌려야 합니다.』

수천 t의 어획 고기록

수산성 아래 서해의 수산사업소들에서

견하여 맑은 물에서의 집중파

해의 어로공들이 뛰어난 성과를

안고 달빛은 4월을 맞이하였다.

종합민자료에 의하면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바다

에 진출한 서해의 용역 현은 물

물들이 사회주의 증진경쟁의 불

길들이 3월에 수원의 어획과

기록을 뛰어넘어 5개년

전략수행의 전선에서 새롭운

만리마속도상조의 불길이 활화

산마냥 거제처럼 뛰어왔다.

3월에 불리한 바다날씨가 계

속되었지만 노도·옹포수역을

차지한 각 수산사업소들의 어로

공들은 만리마속도상조에 전에

나선 전원이 되어 전원의 산

직극적인 어로전을 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

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

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전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산성에

서는 각 수산사업소들의 어로

감이 전원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

를 짜고들었다. 특히 물고기감

이경감이 풍부하고 대밀성이 강

한 일군들을 각 지휘선들에

작의시간을 뛰어넘어 뛰어나

뜻깊은 려양질을 맞으며 더 많은 편직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함흥면 직봉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같은 시기에 비해 근 1.5배로 장성

있으며 순천시구자청년한평원 학

교소와 만주, 천내, 들팡지구

거제한 험역을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세기에도 타오르는 계획으로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지난해 충청의 70일전두와 20

0일전두에서 각각 계획한

1.4분기와 험역을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죽, 융점봉과 주강발전소에

전력생산자를 더해 주었다.

새 기록, 새 기념창조의 불길

이 계획으로 1.4분기와 험역을

1.4분기보다 농부와 쇠바

대결정책의 폐기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극악한 대결 팽성자인 박근혜 역도가 진력의 자리에서 끝내남으로써 북남판 계개선과 평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도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그 런데 병신 품강한다고 박근혜에 대해서만은 그 위기에서 치한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드높은 북남관계 개선 요구를 얹으려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다음기 『정권』에서도 연장되게 하려고 힘사적으로 밟았고 있다.

최근 폐비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부 끼리들은 『정권』이 비워여도 북핵 위협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외교안보정책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다음기 『정권』이 박근혜 역도의 대결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벌써부터 압박문위기 조성하고 있다. 이자들이 대결정책을 조성하는 여지가 『유엔결의』에 제시된다. 『내복정책』은 그니 하고 폐비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여자가 따로 없다.』는 그니 하고 대를 봄고 있는 것도 단일 애당에 의해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한편 폐비들은 미국 상장에게 더 바빠 달라붙어 『내복압박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싸드』의 조기 배치를 서두르는 수법으로 다음기 『정권』이 첫 『내복정책』을 바꿀 용기와 글 강장판왕의 재개가 『유엔결의』에 제시된다.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폐비보수당의 『내복정책』 고수책은 제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력을 가리우고 폭력과 민족의 충돌을 심한을 모면해보려는 응용한 기도의 발로이다.

리성을 가지 사람이라면 북남관계가 어떻게 되어 풍자난간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역도의 『내복정책』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반민족적인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박근혜 역도가 대결임에도 그 부른 『신드로프로세스』라는 것을 『내복정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북남관계 파괴국을 더욱 불장난소동으로 이었다.

폐비보수당국장을 만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우보수당 거지를도 야당의 『내복정책』 선거후보들이 『해별정책』의 제주진을 주장하는 것은 『북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며, 『민족은 폐비국제 세력의 침략을 헤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친북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내복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북남판 계개선의 길에 나서려는 민주개혁 세력의 반목을 사전에 비틀어보려고 악을 쓰고 있다.

이번 속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폐비보수언론들은 법에 부여 야당이 질권하여 청 『내복정책』이 폐기되면 미국과의 『동맹』이 혼물리고 『안보위기』가 고조되어 『민족이 폐비자』로 된다는 모략보도로 지면을 어지럽히면서 사회전반에 광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폐지은 능이 제일 겁기 같다다는 말이 있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박근혜 역도의 대결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벌써부터 압박문위기 조성하고 있다. 이자들이 대결정책을 조성하는 여지가 『유엔결의』에 제시된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폐비들은 미국 상장에게 더 바빠 달라붙어 『내복압박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싸드』의 조기 배치를 서두르는 수법으로 다음기 『정권』이 첫 『내복정책』을 바꿀 용기와 글 강장판왕의 재개가 『유엔결의』에 제시된다.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폐비보수당의 『내복정책』 고수책은 제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력을 가리우고 폭력과 민족의 충돌을 심한을 모면해보려는 응용한 기도의 발로이다.

리성을 가지 사람이라면 북남관계가 어떻게 되어 풍자난간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역도의 『내복정책』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반민족적인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박근혜 역도가 대결임에도 그 부른 『신드로프로세스』라는 것을 『내복정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북남관계 파괴국을 더욱 불장난소동으로 이었다.

폐비보수당국장을 만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우보수당 거지를도 야당의 『내복정책』 선거후보들이 『해별정책』의 제주진을 주장하는 것은 『북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며, 『민족은 폐비국제 세력의 침략을 헤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친북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내복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북남판 계개선의 길에 나서려는 민주개혁 세력의 반목을 사전에 비틀어보려고 악을 쓰고 있다.

박근혜 역도와 그 일당은 의사와 공조하여 반공화국 압박을 강화하면 끌수에 배긴 『제2전북』 야당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어려색게 타산하였다. 이런데로부터 폐비들은 북남협력 사업의 대분에 기다란 빛장을 가로지르고 이렇게 마련되었던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들을 맞다리를려는 죽족 짓뭉개하였다.

폐지은 능이 제일 겁기 같다다는 말이 있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폐비보수당의 날악적망통은 진보민주주의에 절친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경우 만공화국 대결정책에 명을 풀고 있지만 저들의 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한다.』는 그니 하면서 『정권』이 『내복정책』은 그니 하면서 『정권』이 표제된다고 해도 반공화국 대제소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전체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더미운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 역도의 치미족에 베텔려 동족 대결에 기승을 뿐이며 북남관계를 풍자박신 것으로도 부족하여 역도의 과밀로 폭사의 시궁창에 치박한 『내복정책』을 한사고 고수해보려고 일광하는 폐비보수당은 그 자체의 대조 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내복정책』을 광장내는 것은 남녘 민심의 환경같은 지향이다.

박근혜 역도의 『내복정책』은 조선만도에 핵전쟁의 걸음을 물어오고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미국과 아합하여 우리 평화국을 무역으로 침략하기 위한 국적단적인 전쟁정책이다. 그에 따라 폐비마다 갑행되어온 전쟁연습들은 우리 평화국을 불의에 세계전략으로 위협하였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폐비역도의 『내복정책』은 이미 수령이 지난 시대의 오물이다. 폐비보수당이 민심의 비름을 받고 안팎으로 고리되어 세계평화당하고 있는 것도 대경정책의 강행으로 평화에 대한 민인들의 회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물리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대제소동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아메리카제국》의 핵몽동이를 분질러 놓은 조선, 《본토방위전략》을 떠들며 비칠거리는 미국

전 세계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비난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병진로선이 세워진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세계는 미세와 그 주종세력들의 세계와 암살책동, 핵위협공급속에서 통상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옮겨쳐온다.

우리 측의 위력한 탄광코요도는 선군조선의 불체의 기상을 떠나며 목격하였다.

첫 수소탄시험 완성성공과 소형원자력원두의 개발과 핵무기병기화선언, 핵탄두폭발시험, 대수역교제로 탄광기지 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한도로에 전투부수도의 기관차와 홀링환경보의 시험, 전략잠수함 한도한수증시험발사, 조선인민군 전략포병부대들의 만도로에 탄광현대화를 향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조건이라도 치해한다면 도달자들에게 최후방망의 패를 막을 것이라는 조선의 반호한 힘장을 표시하면서 달아져, 현장적으로 일어난 이정이인 사변들은 세계연민들의 태도소식, 특별보도감으로 되었다.

각국 언론들은 행세에서 행세로 치밀려고 있다. 새로 운 핵강국이 출현하여 미국의 핵용기를 불질려놓았다. 미국이 거주로 조선의 핵파로 레드에 걸침하여 아우성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생 105돐에 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국왕 노동로를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를

다른 나라들을 향으로 위협해오면서 미국이 《본토방위전략》을 따를지 않으면 안되는 멍기 어려운 철수입니다.

한국은 미군이 미씨와 미씨에게를 통한 알바니 절회 통화를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중국의 실질 위성 TV방송은 조선은 이미 핵무기부의 문법을 확고히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통한 알바니 절회 통화를 확장하는 것은 오직 대화밖에는 차이가 있다. 《에원의 알력에 굽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정신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을 제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강대국에 들어섰다.》 등 우리 공화국을 친양하는 글들이 편집되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지상대지상 중경거리전략한도한 《북국성-23형 시험발사성장을 두고 언론들은 조선의 고난도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였다.

로씨야의 인민대신문 《스루트리코》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조선의 핵무장을 갖

조선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상대로 표현하는 언행들도 마비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군이 미씨와 미씨에게를 통한 알바니 절회 통화를 확장하는 것은 오직 대화밖에는 차이가 있다. 《에원의 알력에 굽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정신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을 제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강대국에 들어섰다.》 등 우리 공화국을 친양하는 글들이 편집되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지상대지상 중경거리전략한도한 《북국성-23형 시험발사성장을 두고 언론들은 조선의 고난도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였다.

로씨야의 인민대신문 《스루트리코》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조선의 핵무장을 갖

후기에는 《선제타격론》이 통하는 모든 조선인은 핵강국이라고 칭한다. 민주평화당, 총비서, 브라질 자유국당부위, 국회의원, 조선인민파의 현대성 및 조선통일자치회는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처한 듯한 빙계로 된다. 민주평화당, 총비서, 브라질 자유국당부위, 국회의원, 조선인민파의 현대성 및 조선통일자치회는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언이나 다 할수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군사적도달의 균형부터 뿐만 아니라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세계인 핵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군과 서방의 정책이 실세였다. 오직 핵력으로 되는 것은 조선파의 관계개선에 있다.

캄보자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마련하여 주신 두 나라사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영원하기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생 105돐에 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국왕 노동로를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를

로도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를

로